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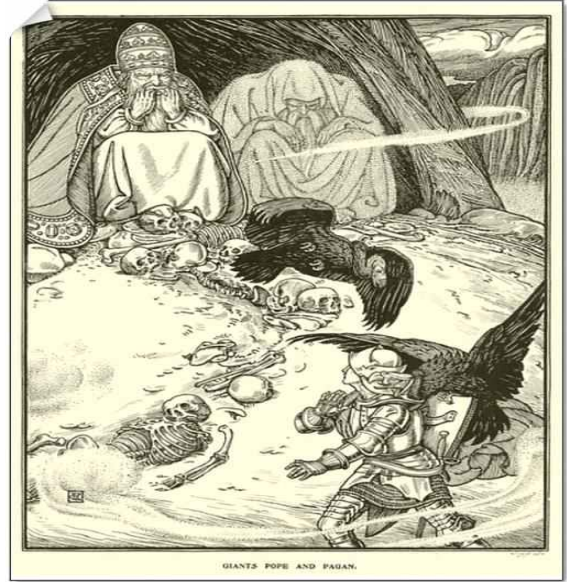
2022 사순절 시리즈 <천로역정 함께 읽기> 5강

“순례자가 만나는 유혹자들”

- 마태복음 7:17-29 -

1. 거인들: 교황(Pope)과 이교도 (Pagan)

이 동굴에는 교황과 이교도라는 두 거인이 옛날부터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온갖 권세와 폭정을 수단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함으로써 그들의 뼈와 채와 피 등이 너저분하게 깔려 있었던 것이다 ... 후에 알고 보니 이교도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됐고 교황은 지금까지 살아있기는 하지만 나이가 너무 많은 데다가 젊은 시절에 저지른 심한 폭행 때문에 자신의 몸에도 많은 상처를 입었고 관절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지금은 단지 굴 입구에 앉아 분통을 삭이느라 손톱을 깨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비웃거나 할 뿐 덤벼들지는 못하고 있었다.



2. 믿음(Faithful) 씨를 만나다

1) 음란을 만나다



저도 낙담에 빠졌다가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곤 양의 문까지 별다른 위험을 겪지 않고 쪽 갔어요. 그러나 음란(Wanton)이란 여자를 만났는데 자칫 큰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음란이 얼마나 알랑거리는지 당해보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순례길을 버리고 자기를 따라나서게 하려고 듣도 보도 못한 쾌락과 만족을 맛보게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해가며 그야말로 안간힘을 쓰더군요

(잠 22:14)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딤후 2:22)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2) 첫 사람 아담(Adam the First)



첫 사람 아담은 기만의 도시 (the town of Deceit)에 살고 있으며...자기의 집은 아름다운 곳으로 세상의 온갖 맛있는 것들이 감추어져 있고 종들은 전부 자신의 자손들이라고 했습니다. ... 딸만 셋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며 내가 원하면 그들과 결혼하여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엡 4:22-24) 너희는 유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갈 6: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3) 모세와의 만남

뒤따라 온 사내는 다짜고짜 달려들더니 혼절할 때까지 두들겨 뺨어요. 간신히 의식을 되찾고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내가 은근히 첫 사람 아담을 따라갈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라며 다시 세게 쳤어요.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내 사전에 자비란 없다면 서 그 분이 말리지 않았으면 죽었을 꺼예요 ... 그 분은 양손과 옆구리에 깊은 상처가 있더군요. 그래서 알았죠. 그분은 주님이었어요. 덕분에 계속 고갯길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4) 불만(Discontent)과 수치(Shame)의 만남



믿음: 불만은 자기랑 돌아가자며 열변을 토합니다. 골짜기로 들어가면 자기랑 친한 교만(Pride), 오만(Arrogance), 자만(Self-Conceit), 세상 영광(Worldly-Glory)와 담을 쌓는다고 말했지요 ... 내가 이 순례의 길에 들어섰을 때 나는 이미 그들과 절연했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은 나에게 혈통 관계를 따질 수 없게 되었지요. 더구나 이 골짜기에 대한 그의 생각은 무척 빛나간 것이었어요.

크리스천: 또 누구를 만났나요?

믿음: 수치를 만났는데 그는 종교 자체를 부인했어요. 사람이 종교에 마음을 두는 것은 가련하고 비열하고 무기력한 일이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양심 자체가 사내답지 못한 것이며, 용감한 정신의 소유자들이 영웅적인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기에 종교를 통해 스스로 얽매이게 한다는 것은 못사람의 조롱거리라고 말하는 것이예요.



(눅 16:15)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시 10:4)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5) 수다쟁이(Talktive)와의 만남

수다쟁이는 누구와도 동행이 되고 무슨 얘기든 다 할 수 있는 작자입니다. 지금 형제님이 했던 말을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똑같이 하고도 남을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들이켜면 들이킬수록 더 말이 많아지겠죠. 마음에도, 집에도, 대화 속에도 신앙이 깃들 여지는 없습니다. 모든 게 그저 말뿐입니다. 신앙도 실



새 없이 주절거릴 때나 입에 올릴 겁니다. 실상을 본 사람들은 ‘밖에서는 천사이지만 집에서는 악마’라고 입을 모으죠. 불쌍한 식구들은 수다쟁이가 얼마나 난폭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례한지 조금만 비위에 거슬려도 고함을 지르며 날뛴답니다. 집 안에서 부리는 일꾼들에게도 공연히 제 몫을 못한다느니,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줄 모른다느니 드잡이를 하기 일쑤라더군요. 다만 얼마라도 돈거래를 해본 이들은 사기꾼과 동업을 하는 편이 낫다고 혀를 찹니다. 살살 꼬드겨서 재물을 빼내가는 재주라면 수다쟁이가 험잡꾼보다 더 악독하고 흉악범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3. 수다쟁이와 긴 대화를 통해 보여주는 믿음의 정의

1) 믿음은 행함을 통해 실현된다

영혼이 없는 몸은 생명이 없는 살덩어리나 매한가지잖아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도 똑같아요. 신앙의 핵심은 실천에 있어요 ... 마지막 때를 흔히 추수와 비교하잖습니까? 알다시피 추수철의 관심사는 열매뿐입니다. 결실이 있으면 가짜도 진짜로 봐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마지막 심판 날에는 수다쟁이의 고백이 얼마나 시답지 않은지 낱알이 드러날 거란 말입니다.

(약 1:2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2) 믿음은 죄에 대한 혐오를 불러온다

내 생각으로 ‘심령이 죄를 극도로 혐오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 거짓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죄와 충돌하면서도 진저리치도록 혐오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 39:15)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창 39:9)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3) 믿음을 인정하는 외적 고백

첫째 신앙고백으로, 둘째는 그 고백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는 경건한 생활, 경건한 마음, 경건한 가정, 경건한 일상 등입니다. 즉 그런 사람은 자신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사 하고, 힘을 달라고 매일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며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타인에게 증거하고, 시간과 재물을 그리스도와 타인들을 섬기는데 사용합니다